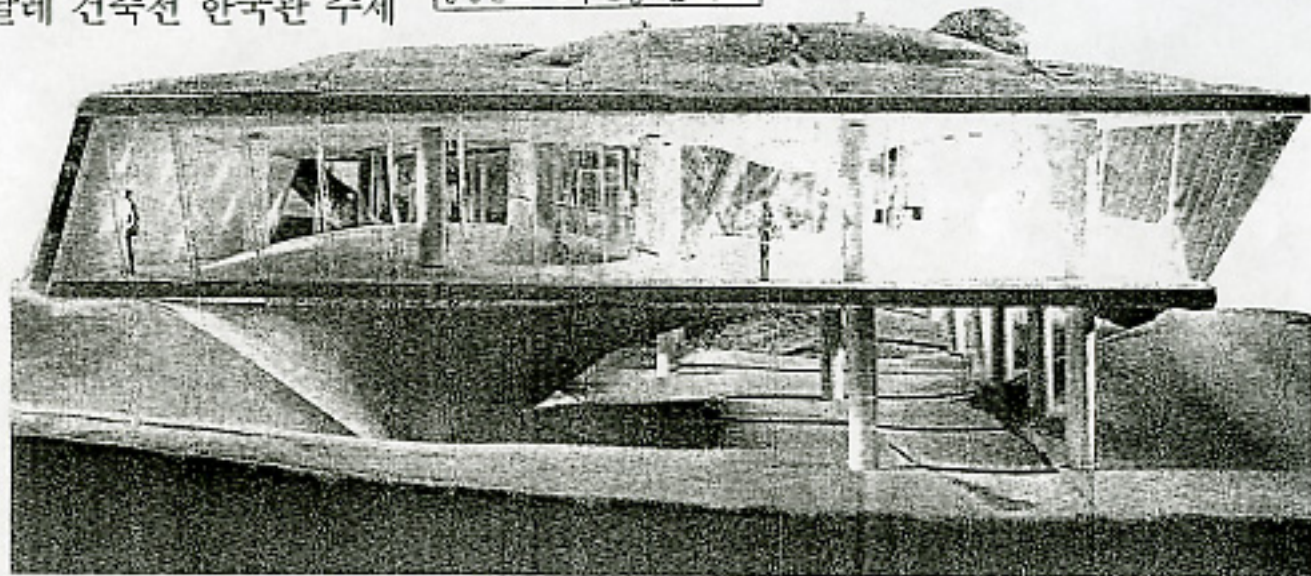


# 방

(房)



불과 50년 만에 90%를 육박하는 한국의 도시화를 속에서 방은 다양한 기능으로 분화하며 도시 속으로 가물었다. 김광수·송재호·유석연씨가 보여주는 '방의 도시'.

## 집 떠나 꿈틀대는 욕망의 공간

지금 서울은 방의 도시다. 지상의 땅 한 칸을 위해 눈물겹게 고부름 받아야 했던 거주공간으로서의 방은 이제 역할을 잃었다. 거리가 넓어 갈 데가 없다. 지하 노래방, 1층 찜질방, 2층 소주방, 3층 전화방, 4층 비디오파, 5층 PC방으로 이어지는 오락 종합선물세트 같은 건물이 사람들을 빨아들인다. 골라잡은 방에서 도시인은 향과·축과·추과·미과·시각을 활짝 열고 음츠렸던 욕망을 발산한다. 한국 도시에서 방은 복합의 사회문화현상이 됐다.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9월 12일~11월 7일) 한국관은 가히 대한민국의 현상이라 할 만한 '방(bAng)의 도시'를 주제로 내세웠다. 세계 건축계가 온갖 방으로 총총하게 연결돼 있는 한국 도시를 함께 즐기며 방(room)과는 다른 '방(bAng)'을 체험한다.

노래방을 설치작업으로 표현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미술가 이불(40)씨에 이어 건축가가 한국 '방 문화'를 들고 베니스에 진출한다. 찜질방이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은 정기용(59·기용건축 대표)씨는 "전통적 집짓기 구실을 넘어 각종 변종들이 태어나고 진화하는 한국 건축공간을 통해 현대 건축가가 맞닥뜨린 도시 건축의 문제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한국관 대표작가로 뽑은 건축가는 김광수(37·이화여대 건축공학과 교수), 송재호(39·송재호건축사사무소

### 찜질방·노래방·PC방 등 한국적 문화현상 표현

대표), 유석연(35·홍익대 건축대 조빙교수)씨다. 세 건축가가 공동작업으로 방의 현상을 분석해 방의 확보작업과 재구성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베니스 자프디니 공원 안에 수많은 방을 만들어 관람객이 스스로 한국의 방을 즐기고 건축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김 교수는 "습기쁘게 탈바꿈해온 도시 속에서 '방'들이 집에서 가물었다는 가설을 세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방"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아 도시의 바이러스이면서 항체이고

동시에 원형세포로 그렸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항상 접촉돼 있는 우리의 도시를 꿈꾸면서 마음 주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로서의 방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는 한국관과 함께 총감독인 커드 포스터(68)가 꾸리는 주제관에 최문규(43·가이건축 대표)·조민석(38·메스터디즈 대표)씨 등이 설계한 삼자(대표 현호준)의 '달기 테마 파크·땀기가 좋

아'가 초청받았고, 특별전에 김선아씨가 '형제친 복원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젊은 한국 건축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집중 조명받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정기를 커미셔너는 "현대문화에도 수천 개의 방이 있다고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런 가상현실을 많이 체험하는 곳이 한국"이라며 "방은 단절이 아니라 그 속에 풍광이 있고 세계가 있다고 별상을 전환하는 점이 이번 건축전의 주제인 '변용'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02-760-4573.

정재승 기자

johanal@joongang.co.kr